

투데이 칼럼

두릉두씨 사적비 건립

김 제시 만경읍을 본관으로 하는 두릉두씨 시조 두경령(952~1018)공의 사적비가 김제시 만경읍 소재 두릉(杜陵)에 지난 12월 4일에 건립되었다. 사적비는 만경읍 만경리 두릉두씨 후손들의 뜻을 모아 세워졌다.

사적비는 기단 0.6m, 비석 3.4m에 총 높이 4m이다. 올 8월 비문 제작을 시작해 12월에 완료했다. 나중우 원광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비문을 짓고, 서흥식 한국서도협회공동회장 이 글씨를 썼다.

시조 두경령은 중국 송나라 태종조에 병부상서를 역임했다. 소주자사로 부임 도중 풍파로 표류되어 고려 복종7인 1004년에 황해를 건너 공지도(管地島)인 현재의 고군산도의 선유도에 표착하게 되었다.

고려 조정에서는 두경녕 공에게 공지현인 현재의 만경읍을 식읍지로 사패(賜牌)를 내리고, 두릉군으로 봉하였다.

그 후 대대로 만경읍에서 세거하면서 고려조에서 큰 벼슬을 얻어 나라이 공을 세웠다.

이들 두지간은 고려조 덕종 때 부친의 뒤를 이어 두릉군 작위를 받았고, 3세 두수총장군은 원종공신 대호군을 역임했다. 5세 두방공은 중서문하성의 중서시랑평장사를 지냈다.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6세 두경승 장군은 명종조에 서경 유수 조위충의 난을 평정하고 문하시중과 삼한후백성공신을 지냈다. 그 뒤 후손으로는 두재균 전 전북대 총장, 두상달 국가 조찬 기도회장, 두세훈 전북도의원, 두진현 전 군산 중앙초 교장 등이 있다.

나중우 명예교수는 "시조 두경녕 공 이래로 후손들이 한결같이 충의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고 효행의 실천으로 충효 가문의 표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진무원종공신 도총관 두양필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사적비도 김제시 만경읍 소재 두릉(杜陵)에 건립되었다. 두양필 장군의 사적비는 두릉두씨 후손들의 뜻을 모아 세워졌다.

기단 0.6m, 비석 2.4m에 총 높이 3m로 올 8월 비문 제작을 시작해 12월에 완료했다. 두양필(杜良弼)은

1608년인 선조 무신(戊申)년에 지금의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에서 태어났다.

무과에 급제한 뒤 해주(海州) 판관(判官)을 지냈으며 1624년(인조 2) 1월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난을 평정하는 데 공훈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功功臣)에 녹훈되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이 피난갈 때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천리길을 달려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이르렀다. 남한산성에서 온갖 계책을 수립하여 적을 섬멸하는데 공적을 세웠다. 인조 임금 은 그의 충의를 가상히 여겨 우의도 총부 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에 임명하였다.

그밖에 선무원종공신과 진무원종공신으로 병마절도사를 지낸 두기문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사적비도 역시 두릉(杜陵)에 건립되었다.

두기문 장군의 사적비는 두릉두씨 후손들의 뜻을 모아 세워졌다.

기단 0.6m, 비석 2.4m에 총 높이 3m로 올 8월 비문 제작을 시작해 12월에 완료했다. 두기문 장군은 조선 선조조에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에서 태어났다.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萬戶) 사복(司僕) 벽동군수(碧潼郡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권을(權櫟)을 따라 대의(大義)를 주장(主張)하였으며, 응치 전투와 이치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다음 해 행주산성에서 크게 이겼으며, 기공비(記功碑)가 세워졌으며, 선무원종이 등공신에 녹훈되었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김기원(沈器遠)을 따라서 두양필(杜良弼)과 함께 큰 공을 세웠다. 일등공신에 녹훈하고 병마절도사로 승진되었다.

앞으로 후손들은 나라를 위한 위국충절의 정신을 이어받고 후세에 길이 전해야 할 것이다.

충의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다. 효행을 실천해야 가문을 충효 가문으로 길이길이 빛내는 것은 후손들의 몫이다. 두릉두씨 후손들이 명실공히 위국충절의 정신을 이어받고 후세에 길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사설

종부세 무엇이 문제인가

종부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여전하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한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됐다. 헌법소원이 빈발하다가 2008년 11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잘 유지됐다.

그 뒤 현 정부가 부동산 값을 못 잡자 마지막 카드로 종부세를 대폭 올려 버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고가 부동산 보유자라도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부담이 될 것이다.

종부세가 임대료에 전가돼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종부세 위헌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세금 부담으로 사유재산이 무상

몰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2008년 위헌소송에서도 나왔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사용권과 처분권은 그대로 소유자에게 있고 조세 부담이 무상몰수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월세도 존재할 수 있다. 전월세자 중에는 돈이 있어도 부동산 값 하락, 대출 이자를 상소 위험, 대출금 상환 부담 등을 피하려고 일부러 집을 안 산 사람도 있다.

규제가 적을 때는 다주택자와 전월세자가 서로 이익을 누리며 공존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에 명목으로 세금도 많이 냈다. 다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세계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공평한 면이 있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은커녕 폭등을 했다. 일정 부분 목적세로 전환해서 주거 안정 재원으로만 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호지부지된 상황이다. 위헌 소송의 결과를 떠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한글세계문화재단 심의두 이사장

사단법인 한글세계문화재단이 지난 11월 전주 중부교회 비전센터에서 '한글세계화를 위한 세종대왕 여가 행렬 재현 및 세계 전통 의상 발표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함께 했다.

먼저 전북인재개발원 김민숙 명칭의 민요와 박보성 교수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다 이어 세종대왕과 소현왕후의 여가 행렬, 그리고 당의, 평상복, 혼례복 등 한국 교유의 전통 의상들이 출연했다.

20명의 필리핀,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을 모국으로 한 이주 여성과 전년도 수상자들도 참가했다. 발표회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인기상, 특별상, 전체 참가상 등이 있었다. 또한 화장품, 자전거, 호텔 숙박권, 모국 방문 항공권 등 다양한 상품을 참가자 모두에게 시상했다.

심의두 한글세계문화재단 이사장은 '한글 세계화로 일등 국가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 다가

왔다.'고 강조한다. 그는 5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사명감 하나로 1989년 뉴욕을 시작으로 한글 세계화 운동을 전 세계에 펼치고 있다.

국가적 사업이라 여기며 힘겹게 걸어오며 알려졌다. 그는 한글의 우수성과 국력 신장을 키워나가는 원동력을 마련하고자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참여를 통한 기금으로 전 세계에서 한글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고, 자랑스러운 한국으로 한글 공부를 하러 오는 학교를 설립하지는 취지다.

요즘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와 경제대국 성장에는 한글의 우수성과 교육열에 담긴 강한 정신력이 있다. 언어의 체계적인 전달과 함축에 담긴 우수한 한글의 정신을 통하여 세계 속의 일등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일등 국가의 초석을 다져갈 한글 세계화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전 세계 공용어가 될 때까지 모든 이들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공원 연못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캔자스주 존슨 카운티 리브시의 한 공원에서 한 소녀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이 설치된 연못 주변을 걸어가고 있다.

영국 위구르 재판소 '중국, 반인륜적 범죄 저질러'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중국 대사관 밖에서 시위자들이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 학살을 멈추라는 내용의 손팻말 등을 들고 있다.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영국의 유명 변호사가 설립한 '위구르 재판소'는 이날 중국 정부가 반인륜적 집단학살과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